

OECD Regions at a Glance

Summary in Korean

OECD 지역 총관

국어 개요

독자 안내서

왜 OECD 지역 총관?

최근 해에 지역개발 쟁점이 다수 OECD 국의 국내정책 아젠다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유럽연합, 세계무역기구 같은 제도적 경과와 세계화의 경제 추세에 힘입어 추진된 더 고도의 통합은 국가차원의 국경을 무너뜨리며 세계시장환경에 지역주의적 경쟁을 창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간 격차가 뚜렷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 과연 국가가 사회 통합 보장과 동시에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의 의문이 생긴다.

지역 쟁점에 관심이 다시 고조되며 아(亞)국가 sub-national 차원의 통계 지표는 신규 수요를 보게 되었다. 정책입안자는 지역 경쟁력의 원천에 관한 확고한 통계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이 정보 입수는 항상 가능치 않다. 실제로, 아(亞)국가 차원의 데이터는 제한된 상태이고, 지역 지표의 국제 비교도 난해한 상황이다.

OECD 지역 총관은 OECD 국가의 주요 토지 추이와 지역별 추세를 분석, 비교하여 이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 그 취지를 둔다.

지역 비교

아(亞)국가 차원의 경제 분석작업에서 주요 쟁점은 바로 그 분석 단위인 지역이다. ‘지역’이라는 용어는 국내에서나, 국가간에서, 매우 상이한 현실을 의미할 수 있다. 그 일례로, OECD 지역에서 최소 규모인 멕시코의 Concepcion de Buenos Aires 지역은 면적이 10 Km² 이하인 반면 최대 규모인 캐나다의 누나벗은 2000 Km² 이상이나 된다. OECD 지역별 인구 규모도 마찬가지로, 호주 Balanec ACT의 4 백여 명에서 일본 칸토의 4 천 7 백만 명 이상까지 거주민 수에 차이를 보인다.

이 쟁점을 다루고자, OECD는 각 회원국의 지역을 분류시켰다 (Sources & Methodologies “OECD Regional Grids” 참고). 이 분류방식은 2개의 지역차원 (TL)에 기초한다. 고위급 차원(2차 지역)은 300여 개의 매크로 지역으로 구성되며, 저위급 차원(3차 지역)은 2300개 이상의 마이크로 지역으로 구성된다.¹ - 유럽국의 Eurostat 분류 방식과 전면 일치한 - 이 분류방식은 동일한 지역차원에 속한 지역간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한다. 실제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이 2가지 지역차원은 공식 수립 과정을 거쳐 대체로 안정된 상태이며, 다수국에서 지역정책 집행상의 기본 틀로도 활용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사항은 지역간의 상이한 ‘지리’ 특성이다. 예를 들어, 영국的高도로 도시화된 런던지역과 농촌지역인 셰틀랜드 군도의 비교작업은 비록 이 두 지역이 동일한 지역차원에 속할지라도 비교작업의 적절성 측면에 의문을 제기할지 모른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반영하고자 OECD는 각 지역을 주로 도시지역, 주로 농촌지역, 중간지역의 3가지로 분류하여 지역 유형을 체계화하였다. 이 유형화는 농촌지역사회나 도시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역 인구 비중에 기초하기 때문에 동일 유형에 속한 지역간의 의미 있는 비교 작업이 가능해진다 (Sources & Methodologies “The OECD Regional Typology”).

본 발간물의 구조

OECD 국가가 새로이 수립한 접근 방법에 따라, ‘지역 총관’은 3개의 주요 주제별로 편성된다:

1. 국내 성장 주체로서의 지역.
2. 지역의 현지 자산 최대 활용.
3. 지역 복지를 위주로 경쟁 실시.

첫째 주제는 국내의 경제 성장 요소가 소수 지역에 집약적으로 국한된 경향이 있으므로 국내 성장을 촉진키 위해서는 지역 범위에서 이들 요소의 활용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주제는 지역 단위에 기초한 경제성과 평가를 통해 아직 활용되지 않은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동원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주제는 복지가 지역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임을 감안하여 복지 요소를 다방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국내 성장의 주체로서의 지역

경제활동의 지리 측면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아마 그 집중도일 것이다. 모든 OECD국의 생산활동은 소수의 도시 지역 부근에 집중적으로 치중된 경향이 있고, 산업체는 고도로 특화된 생산 극지에 국한돼 있으며, 실업은 수시로 몇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기후 및 환경 여건의 차이점으로 일부 지역은 인구 정착에 방해를 받는다. 반면 반대로 몇 도시 중심지의 부근은 인구 집중화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OECD 인구의 절반 이상(53%)이 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림 1.4). 이러한 집중 추이는 바로 도시화 과정에서 유발된 경제 기회 확대와 서비스의 접근성 증진으로 저절로 강화되어지고 있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헝가리, 일본,

¹. 0차 지역은 일국의 전국토를 일컫고 1차 지역은 매크로 지역들로 구성된 단체를 지칭한다.

한국,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등 다수 OECD 국에서, 국내총생산의 40% 정도가 단지 10% 지역이 이루어 낸 생산량인 것이다 (그림 2.1).

이는 실업 추이에서도 마찬가지다. OECD 국 실업의 약 47%가 도시지역에, 31%가 중간지역에, 22%가 농촌지역에 각각 집중되어 있다 (그림 3.3). 하지만 실업 분포는 지역 유형별로 국가마다 현저하게 차이는 경향이 있다. 벨기에, 일본, 한국, 네덜란드, 영국, 미국은 국내실업의 최소 60%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지만,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은 총실업의 절반 이상이나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뉴질랜드, 스페인, 슬로박, 터키는 중간지역 부분에 실업이 최고로 집중되어 있다.

경제 성장의 핵심 자산은 소수 지역에 한해 국한된 경향이 있다. 2001년 OECD 회원국이 기록한 총 특허 건수의 54%가 단지 10% 지역에 의한 성과였고 (그림 5.1), 고학력 인구의 64%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림 6.3).

경제 자산의 집중화는 국내 경제성고가 역동적인 소수 지역에 의해 주도됨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6년부터 2001년 사이, 총고용창출의 평균 56% 정도가 10% 지역에 의한 것이었고 (그림 9.3) 이에 반해 일자리 상실의 약 70%는 나머지 10%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그림 9.4). 결론적으로, OECD 국의 총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지역적 요인은 최소 전국적 요인만큼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역의 현지 자산 최대 활용

경제 성과도는 OECD 국가에 차이를 보이나, 이 국가 격차는 일국에 드러난 지역간 격차에 비하면 그 정도가 수시로 덜하다. 2001년, 룩셈부르크 1인당 GDP는 터키 수준의 8배를 넘었다. 그렇지만 터키 국내에서 Kocaeli 지역 1인당 GDP는 Hakkari 지역 수준의 거의 13배나 되었다.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서부의 내(內)런던의 1인당 GDP는 Anglesey 섬 수준의 9배 이상이나 되었다 (그림 11.2).

같은 해에 실업률 부문에서 국가 격차는 17% 정도였다 (그림 13.1). 그렇지만, 캐나다,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에서 실업률의 지역간 격차는 20%를 웃돈 수준이었다 (그림 13.2).

경제 성과도는 OECD 지역마다 뚜렷이 달라진다. 그러면 왜 일부 지역 경쟁력은 여타 지역보다 우수한 것일까? 왜 일부 지역의 1인당 GDP는 높은 (비교우위) 반면 나머지 지역의 1인당 GDP는 낮은지 (비교열위) 여기에 대한 주요 설명 요인은 지역별 벤치마크 작업을 통해 (표 15.1)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GDP가 높은 지역의 다수 경우에(43%), 생산성이 주요 비교우위 요소로 대두되는 것 같다. 1인당 GDP가 낮은 지역의 훨씬 더 다수 경우에도(62%), 생산성이 가장 빈번한 비교열위의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1인당 GDP가 높은 지역에서는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두 번째로 빈번한 비교우위 요소인 (20%) 반면 1인당 GDP가 국가평균에 미달인 지역의 단지 8%만이 낮은 노동 인력 참여율을 부진한 지역 경쟁력의 주요 설명 요소로 들고 있다.

대체율, 특화율, 취업률은 1인당 GDP가 높은 지역에서나 낮은 지역에서나 일정률이 고수되는 듯하다. 이러한 대체율, 특화율, 고용률은 각각 15% 가량, 7%, 6% (1인당 GDP가 낮은 지역에서는 7%)에 달한다.

끝으로, 직업능력은 성과 부진의 설명 요소라기보다는 비교우위 요소인 경우가 더 허다하다. 요컨대, 직업능력은 1인당 GDP가 높은 지역의 6% 경우에, 이에 반해 1인당 GDP가 낮은 지역의 1% 경우에만, 주요 비교우위 요소로 부각되어진다.

지역 복지를 위주로 경쟁하기

경제 자산은 지역 경쟁력에 중요 사항이지만 고가치 사업과 숙련 노동자를 유인하는 맥락에서의 지역 역량은 - 수시로 복지와 관련된 - 더 무형의 여타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종종 대규모의 경제 중심지에서만 활용 가능한 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복지 수준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OECD 시민이 가장 근처의 중심지에 이르는 데 평균 운행해야 하는 거리는 (시간 단위로) 도시지역, 중간지역, 농촌지역을 기점으로 각각 39분, 1.55시간, 3.29시간을 요한다 (그림 23.2).

고급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지역마다 뚜렷이 차이 진다. 고등교육 등록에서 지역간 변동폭이 가장 큰 국가는 터키, 슬로박이고, 미국,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입학률의 지역간 변동폭이 거의 없는 경우다 (그림 25.1).

복지의 또다른 중요 측면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1인당 의료 전문인 수는 도시지역이 가장 높고, 농촌지역이 가장 낮다 (그림 27.2). 슬로박은 도시지역의 1인당 의사 수가 국가평균의 거의 2배인 반면 오스트리아, 그리스, 헝가리, 한국에서 이 비중은 국가 평균의 50% 정도로 더 높다.

건강 상태의 지역간 격차는 복지 수준에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 2001년, 지역간 격차는 미국, 호주, 멕시코에서 최대폭이 기록되었고,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가장 소폭의 격차를 보였다 (그림 26.2).

안전성은 각 지역의 매력도에 추가 기여하는 요소이다. 안정성은 한 시민이 어떤 지역에 거주할 것인지를 결정짓게 하는 요소이며, 기업을 위한 긍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재산 관련 범죄에서는 스페인, 슬로박, 오스트리아, 터키가 최대의 지역간 격차를 보이는 듯하다. 반대로, 뉴질랜드, 그리스, 덴마크는 훨씬 더 소폭의 지역간 격차를 보였다 (그림 28.1).

캐나다,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한국, 스페인은 인신 공격 신고율에서 지역간 격차가 또한 가장 대폭으로 드러난 반면 아일랜드, 덴마크는 인신 대상 범죄 신고 건수에서 지역간 분포가 보다 고른 듯하다 (그림 29.1).

치명적인 교통사고율에서 지역간 격차는 포르투갈, 미국이 최대폭이었고, 뉴질랜드, 네덜란드, 슬로박이 가장 소폭이었다 (그림 30.2). 거의 모든 OECD 국 경우, 1인당 개인 차량 수 기록은 도시지역에서 더 높았다. 미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캐나다 경우에만, 개인 차량 밀도가 농촌지역이나, 중간지역에서 더 높았다 (그림 31.2).

© OECD 2005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OECD 저작권 및 원본 출판물의 표제를 언급할 경우
본 개요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개요는 영어와 불어로 각각 발간되었던 OECD 원본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OECD 출판물과 개요는 OECD Online Bookshop
www.oecd.org/bookshop/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ights@oecd.org

Fax: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